**[평강의 은혜]**  2020.04.05

엡 1:1-2 정성록 목사님

엡 1:1-2

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 지금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다.
* 바울도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각 지역에 있는 교회 또한 고난 가운데 있었다.
* 성도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와 평강이다.
* 은혜와 평강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별하는 것이다.
* 평강에 대한 기독교와 타종교와의 차이를 알고자 한다.
*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호의면 선물이다.
* 기독교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한다.
* 그러므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요, 사랑의 종교요, 믿음의 종교요, 소망의 종교라고 한다.
*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한 종교가 기독교라면,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출발점도 하나님의은혜로부터 시작하고, 믿음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하며, 우리 모든 삶의 근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출발한다.
*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 평강이다.
* 평강은 고요한 상태, 안전한 상태, 갈등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그래서 평강은 안전한 마음의 상태라고도 한다.
* 우리가 아무리 고요한 상태에 있다고 하여도, 어느 순간에 잡다한 생각들이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것을 휘집어 놓는다.
*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도 우리는 두려울 수 있다고 한다.
*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가운데에도 평강하지 않을 수 있다.
*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불안할 수 있다.
* 평강을 라틴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며, 히브리어로는 [살롬]이라고 한다.
* 바울은 평강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하였다.
*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
* [에이레네]는 경쟁과 다툼이 있은 후에 함께 모이고, 화해를 이루는 것을 뜻한다.
* [에이레네]는 화평이요 평강의 뜻이다.
* 평강이라는 단어에는 근본적으로 마음이 흡족한 상태, 마음이 평안한 상태라기 보다는 [연합]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력하다. 즉, 분리되었던 자들이 연합되었다는 의미이다.
*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찾아오는 것이다.
* 평강은 감정이 아니다. 평강은 감정이라는 것을 뛰어 넘는 것이다.
*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 하나님께서 평강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 이것이 은혜이다.
*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파괴되었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적으로 와야 한다.
*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보내 주셨으며, 그 은혜가 우리를 찾아 왔고,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할 때에 비로소 참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
*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된 이상 평강은 없다.
* 관계가 깨지면 평강이 깨진다.
* 왜 이 세상 가운데 평화가 없을까? 우리의 마음 속에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이다.
*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신다.
*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물으셨다. 왜 물으셨을까? 몸은 그곳에 있었으나, 아담은 죄에 팔려서,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로 인하여 평강을 잃어버렸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렸다. 자연 만물과의 평강 또한 깨어져 버렸다.
*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왜 숨었는지를 물으셨다. 그에 대한 아담의 대답은 잘못되었다. 아담은 본인이 벗었기 때문에 숨었다고 하였으나, 아담이 죄를 짓기 전부터 아담은 벗고 있었다. 어쩌면 아담은 죄 지음에 대한 고백과 회개가 있었어야 했다.
*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나무에서 잘려 나간 가지와 같다.
*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이다.
*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과의 화평도 깨진다.

창 3:7

1.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 수치심은 죄책감이다. 수치심은 죄를 지어서 오는 것이다. 수치심이 생기면 자신을 포장하려고 한다.
* 우리는 자식을 통해서 인생을 보상 받고자 한다.
* 우리는 뭔가로 치장하려고 한다.
* 아담은 하와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고, 하와는 뱀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고 한다. 모두 남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한다.
*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온다.
* 내 중심이 되는 순간 평강은 깨진다.
* 평강은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될 때 평강은 깨진다.
* 죄 가운데 있으면, 평강은 없다.
* 회개의 역사가 없는 한 하나님과의 평강은 누릴 수 없다.
*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온다.

렘 6:14

1.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 기도했기 때문에 당연히 평강이 오는 것은 아니다.
* 평강은 기도했다는 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강은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평강을 얻기 위해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 내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면 주님과의 만남이 회복되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평강은 오는 것이다.
* 하나님과의 관계적 확신이 평강이다.
*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 원수 되었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케 된 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화이다. 그러므로 평강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다.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 그러면 나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랑하게 된다. 나를 사랑하면 남과 비교하는 의식이 사라진다.
* 남과 비교하는 의식이 사라짐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기 때문이다.
* 나를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된다. 이웃과의 관계가 바뀐다. 그때부터 평강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 마음의 영혼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는 것을 향하여 발버둥치고 가고 있을 때가 평강이다.
*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의 고백을 확인해 보자. 시편 29:11.

시 29:11

1.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만 평강의 복이 온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하나님을 붙잡았다.
* 이사야 26:3에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하였다.

사 26:3

1.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 평강은 하나님을 붙잡을 때만 온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평강이 온다. 하나님을 믿을 때 평강이 온다.
* 하나님을 믿고 붙잡을 때 환경을 초월할 수 있다.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다.
* 평강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
*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다.
*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평강이 올 수 없다.
* 교회는 원래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다.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는 지혜롭게 문제를 터트려야 한다. 교회의 문제를 그냥 덮는 것이 평화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에 말씀하셨다.

눅 12:51-53

1.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2. 이 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3.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과 동시와 죄와 화평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과 대적하기 위해서 오셨다.
*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
*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다면, 세상과 화평할 수 없다.
*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화평 되고 있는 것이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 우리가 신실한 성도라면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여야 한다. 그것이 화평이다.
*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가?
*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이다.
* 평강은 하나님의 선물로 오는 것이다.
*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야 한다.
*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평강은 상황을 뛰어 넘는다.
*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평강이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신다.
*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께서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편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 되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와 위로와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있다. 그러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장악한다.
* 어떠한 상황에서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 이탈리아 한 의사(독일 의사 율리안 우어반 38세)의 고백 중에서

[질병과 고통으로 죽어가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이 순간에도 전 행복합니다.

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 무신론자이었던 율리안 우어반은 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 C.S 루이스의 말

[고통은 죽어 있는 세계를 깨우치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고통은 악인에게 개선할 의지를 제공해준다. 고통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영혼의 요새 안에 진리의 깃발을 꽂는 것이다. 고통은 괴롭다. 하지만 고통을 통해서 사람이 안전하게 된다.]

*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케 하는 은혜와 평강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요점

*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이다.
*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기도 제목

*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 지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적용

* 매일 하나님과의 만남을 1시간씩 정기적으로 갖도록 하자.